

역사의 감옥: 어느 전쟁 세대의 삶과 죽음

— 김원일의 『슬픈 시간의 기억』을 중심으로*

오 자 은**

요약

이 글은 『슬픈 시간의 기억』을 분단과 전쟁의 역사를 증언하는 ‘김원일적 소설’이자 노년소설로서 함께 읽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죽음을 앞둔 네 명의 노인의 기억과 의식을 매개로 하여 한국 현대사를 만든 결정적인 십여 년의 시대를 이야기한다. 한맥기로원에서 세상과 격절된 채 ‘노인’으로서의 현재와 식민지 시대,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까지 역사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아냈던 ‘인간’으로서의 과거 사이에서 모순을 겪는 네 명의 노인을 통해 작가는 ‘역사적 개인’의 유형학을 보여준다. 고난의 역사를 모두 몸으로 겪은 한여사, 욕망에만 충실하면서 역사를 시류처럼 타며 살아낸 초정택, 신앙으로써 보호받으며 성소 안의 삶을 선택한 윤선생, 지성으로 세상을 이해한 나약한 지식인 김씨. 네 노인을 통해 육체의 역사이자 정신의 역사이며, 욕망의 개인이 살아온 역사이자 정신적 개인이 살아온 역사가 드러난다. 그러나 이들이 평생 추구하던 가치는 죽음 앞에서 그 빈틈과 무의미를 드러내면서 전복된다. 귀부인은 양공주로 추락하고 신앙인은 신을 회의하며 살아생전의 ‘선’과 ‘악’의 가치 대립은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의미해지고, 죽음은 생의 가치를 전도하고 파괴하는 카니발적 힘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역사가 남긴 삶의 고통을 극복하고 살아갈 의미를 부여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고유한 정체성은 해체되고, 역사의 상흔인 ‘슬픈 시간의 기억’은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극복할 수 없다는 비극적 인식 속에서 역사와 인간은 대립한다. 모든 역사적 규정성 너머에 있는 ‘인간적 삶’은 도달할 수 없는 먼 유토피아적 영역에서만 남게 된 어느 전쟁 세대의 절망을 통해, 역사와 인간 사이의 올바른 선택에 대한 질문이 가장 첨예하게

* 본 연구는 2024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교양대학 조교수

제기되는 것이다.

주제어: 김원일, 슬픈 시간의 기억, 태평양 전쟁, 노년소설, 카니발

목차

1. 서론
2. 노년의 딜레마: '노인'의 현재와 '인간'의 과거
3. '역사적 개인'의 삶의 구조와 유형학
4. 죽음 전후: '어두운 카니발'의 의미
5. 결론

1. 서론

주지하다시피 김원일은 좌익 아버지에 얽힌 가족사, 한국전쟁 등을 배경으로 역사와 개인 사이의 역동을 주로 다뤄온 작가이다. 전쟁고아인 주인공이 나오는 등단작 「1961·알제리」부터 그의 주요 작품은 대부분 분단문학의 자장 안에 놓여 있다고 평가된다.¹⁾ 예컨대 「어둠의 혼」이나 『노을』 같은 그의 대표작이나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마당 깊은 집』 같은 작품에는 ‘빨갱이’ 아버지의 떠남, 한국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고난이라는 모티프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좌익 아버지의 월북이라는 작가의 가족사적 배경은 김원일 문학의 근원적 지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남겨진 아들의 성장서사는 김원일 문학의 대표적 주제가 되었다.

이는 독자의 입장에서 김원일에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지만 김원일의 소설 세계를 이것으로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원일은

1) “김원일 소설은 작가가 막 평단의 관심을 얻기 시작했던 1970년대 초중반에도, 그리고 현재 까지도 분단문학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김명훈, 『『어둠의 혼』에 이르는 길-김원일 초기소설에 나타난 화자/인물의 형상을 중심으로-』, 『배달말』 71권, 배달말학회, 2022, 601면.

긴 소설 창작 기간 동안 한정된 주제를 천착하면서도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 확장하고 문체와 서술의 시점, 소설 구성 방식 등의 면에서도 새로운 실험을 꾸준히 시도해온 작가이다. 김원일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1970년대 이래 「어둠의 혼」에서부터 상당수 소설이 전쟁을 포함한 역사와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계열을 이루면서 다양한 변주를 통해 주제의식을 넓혀왔다면, 이러한 김원일의 소설적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으로서 후기작인 『슬픈 시간의 기억』을 빼놓긴 어려울 것이다.

이 글의 연구 대상인 『슬픈 시간의 기억』은 예순의 나이가 된 김원일이 집필한 연작소설로서 한국사의 역사적 분기점을 다루는 ‘전형적인’ 김원일 소설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시도들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역사를 모두 관통하고서도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시점에(2000년 전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네 명의 노인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는 점이 매우 독특하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네 명의 노인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청장년기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절대다수의 소설과 차별성을 가질뿐더러, 문체의 측면에서는 일체 문단 구분이 없다는 점을 이 소설의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모두 일반적 소설적 관습의 의식적 거부이며 여기에는 노년에 다다른 작가 김원일의 어떤 분명한 작가적 의도가 있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김원일 스스로도 “소설과 죽음을 생각”하고 “오래전에 구상해두었던 노인 이야기”²⁾라고 말하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물론 『슬픈 시간의 기억』은 김원일이 활발히 활동하던 중장년 시기의 작품들만큼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긴 어렵겠으나 그래도 일정량의 작품론이 제출되어 김원일 연구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존 연구들을 일별해 보면, 죄의식이라는 심리 기제로써 ‘기억’의 문학적 재현 양상을 분석하거나³⁾, ‘발설과 은폐’라는 분석의 틀로 노인들의 행위와 의

2) 김원일, 『슬픈 시간의 기억』, 강, 2011, 349면. 이후 이 책에서의 인용은 괄호 안 면수로만 표기함.

미를 살피는 연구⁴⁾, 네 노인의 질병이 지닌 의미와 작품의 주제 사이의 연관성을 살핀 연구⁵⁾,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노년소설로서 해당 소설이 갖는 치유적 효과에 집중한 연구⁶⁾, 인물들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억과 망각을 어떻게 조직하는지 살피는 연구⁷⁾,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 남성 중심 사회 속 여성 주체를 살피는 연구⁸⁾, 김원일의 분단인식의 휴머니즘적 변화를 살피거나⁹⁾, 김원일의 가족 소설적 특징 속에서 가족담론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¹⁰⁾ 등이 있다.

거칠게 정리해보면 기존 연구사는 크게 두 계열로 나뉜다고 할 수 있겠다. 김원일의 작품 세계 안에서 『슬픈 시간의 기억』의 의미를 분석하는데에 집중하는 경우와 최근 심화되는 노령화 사회와 관련하여 노년 소설로서 이 작품의 의미를 살피는 경우이다. 주로 초기, 중기 연구들이 전자에 속하며 최근으로 올수록 노년문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후자에 속한 연구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이는 어떤 연구 경향이 주류가 되느냐가 현재의 지배적 관심에 좌우된다는 것을 새삼 보여주지만 김원일의 작품을 ‘노년소설’로 범주화하려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노년소설’

- 3) 박찬효, 「김원일의 『슬픈 시간의 기억』에 나타난 죄의식의 표출과 과거 기억의 재현 양상」, 『한국언어문학』 86권, 한국언어문학회, 2013.
- 4) 마혜정, 「노년의 욕망: 발설과 은폐-김원일의 『슬픈 시간의 기억』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9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 5) 김은정, 「질병의 의미를 통한 노년소설 연구- 김원일의 『슬픈 시간의 기억』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77권, 국제어문학회, 2018.
- 6) 이숙, 「노년소설의 서사적 양상과 치유적 효능- 김원일의 『슬픈 시간의 기억』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92호, 한민족어문학회, 2021.
- 7) 우은진, 「김원일의 『슬픈 시간의 기억』에 나타난 노년 서사의 서술되는 기억과 망각되는 시간」, 『어문논총』 78권, 한국문학언어학회, 2018.
- 8) 우은진, 「김원일의 〈나는 누구인가〉에 드러난 여성의 중층적 시선과 목소리」, 『한국문학논집』 62권, 한국문학회, 2012.
- 9) 이성희, 「『슬픈 시간의 기억』을 통해 본 김원일의 분단에 대한 인식」, 『반교어문연구』 23호, 반교어문학회, 2007.
- 10) 조희경, 「가족, 그 슬픈 초상-김원일의 『슬픈 시간의 기억』」, 『우리문학연구』 16집, 우리문학회, 2003.

에 대한 정의가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문학적으로 노년소설에 대한 규정은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로 특징지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생겨난 새로운 소설 유형”¹¹⁾으로 정의된 바 있는데 65세를 기점으로 하여 ‘65세 이상의 작가가 쓴 소설’, ‘65세 이하의 작가가 노년을 소재로 다룬 소설’, 이렇게 두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¹²⁾ 그러나 노년의 작가임에도 노년을 소재로 소설을 쓰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생각해본다면 상기의 분류법 역시 모호하다는 점을 기존의 연구자들이 지적해왔다.¹³⁾ ‘노년’이 아니라 ‘노인성’, ‘말년성’이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연구들이 최근 제출되는 이유도 생물학적 나이만이 아니라 “존재론적 양상으로서의 노인성”¹⁴⁾이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¹⁵⁾

물론 『슬픈 시간의 기억』의 경우 김원일도 이 소설을 집필하던 자신을 “세상 어느 한 구석에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는 늙은이”(349면)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80세 전후 노인 네 명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들 모두가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를 그렸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이미 작가 스스로 인간의 삶의 유한성과 죽음이 첨예화되는 시기로서의 노년 내지 말년이라는 지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년 소설이라는 규정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노령화 사회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노년문학’의 틀을 강조해 분석하려 하면 김원일의 고유한 소설 세계 전체의 맥락이 배경으로 물러날 위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주로 김원일 소설의 전반적 주제의식과만 관련지어 이 작품을 다룰 경우에는 노년의 작가

11) 류종렬,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사』, 『한국문학논총』 50집, 한국문학회, 2008, 504면.

12) 김윤식, 『한국 문학 속의 노인성 문학』, 김윤식, 김미현 엮음, 『소설, 노년을 말하다』. 황금가지, 2004, 250면.

13) 박대현, 『한국노년문학과 말년성(lateness)의 지형학-노년문학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논의 확장을 위한 시론(試論)』, 『한국문학논총』 79호, 한국문학회, 2018, 398면.

14) 김미현, 『웬 아임 올드』, 김윤식, 김미현 엮음, 앞의 책, 282면.

15) 박대현, 앞의 글, 399면 참조.

가 굳이 노년의 인물을 내세워 말하고자 한 의도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슬픈 시간의 기억』의 적절한 해석을 위해서는 김원일 소설 세계 안에서의 의미와 노년소설로서의 의미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연구사를 정리하면서 살펴본 두 계열의 연구 사이에 어떤 교차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슬픈 시간의 기억』은 여전히 김원일 문학의 중심 주제인 좌우익 갈등과 분단, 전쟁과 이산의 비극을 이야기하며, 이 점에서 김원일적 소설 세계와의 연속성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다만 이 작품의 특별한 점은 그 역사를 죽음을 눈앞에 둔 네 노인의 삶을 통해서, 즉 노년소설의 틀 속에서 이야기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네 노인이 모두 1920년경 전후에 태어나 1998년 가을에서 2001년 가을까지 3년의 시간으로 설정된 소설 속 현재에서 당시 평균수명을 상회하는 나이에 이른 인물이라는 것이 특히 주목을 요한다. 그들은 모두 죽음에 직면한 노인인 동시에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인생의 청춘기를 태평양 전쟁, 해방, 분단, 한국전쟁에 이르는 10여년의 격렬하고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보낸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전체가 그때의 생의 체험과 기억에 결정적으로 지배당한 사람들이다.

바로 여기에 『슬픈 시간의 기억』을 분단과 전쟁의 역사를 증언하는 김원일적 소설이자 노년소설로서 함께 읽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김원일이 죽음을 앞둔 인간의 시점을 통해서 인간 삶 전체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전체적 구조가 한국 역사에서 대단히 결정적이고 특수한 위치에 있었던 한 세대의 삶 속에서 어떤 양상으로 구현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2. 노년의 딜레마: ‘노인’의 현재와 ‘인간’의 과거

『슬픈 시간의 기억』은 사실 양로원인 한맥기로원의 네 명의 노인들, 한 여사, 조정택, 윤선생, 김씨의 이야기를 차례로 이어가는 연작소설로서 이들이 각 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 노인들은 모두 육체와 정신의 부조화 속에서 혼란을 겪는데, 그들의 정신은 늙은 육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젊은 시절을 더욱 생생하게 떠올리며 자신의 현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한여사의 경우 화장을 수 시간씩 하며 자신의 주름을 감춘다. “화장을 하고 물색 고운 옷 차려입고 나서면 사무장 말처럼 이십 년쯤은 젊게 보인다고 그녀는 확신”(15면)하거나 “화장으로 늙음을 감춘 게 아니라고”(24면) 스스로를 설득한다. 한편 조정택은 끊임없이 젊은 시절 나뉘던 외정을 회상하고 외정의 상대였던 우씨의 환영은 노인이 된 조정택의 일상을 문득문득 침범한다.¹⁶⁾ 한 여사가 치매에 걸린 채 젊은 날의 감각에 이끌려 자위 행위를 하는 것이나 조정택이 주변인들에게 음담패설을 반복하는 것은 여전히 젊은 시절에 머물러 있는 정신이 이를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는 늙은 육체를 부정하기 위해 하는 행동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부조화와 모순은 한맥기로원에서 세상과 격절된 채 특별한 일 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여든 전후의 ‘노인’으로서의 현재와 그들이 젊었던 과거의 시간, 즉 식민지 시대 말기에서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격렬하게 진행되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청춘을 보내며 치열하게 버티고 살아냈던 ‘인간’으로서의 과거 사이에 존재한다. ‘노인’과 ‘인간’을 모순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대체 노인은 인간이 아니란 말인가? 어떤 의미에

16) 그해 늦봄, 장터택은 우씨와 한 달 남짓 질긴 정분을 나누었다...(중략) 말복을 넘기기가 숨이 차다. 웬일로 오늘은 우씨 그 양반이 앉으나 서나 나타나는지 알 수 없다. 우씨를 밀쳐내자면 또 누구와 씬 없이 지껄이며 입농사라도 지어야한다. 조정택은 오호실에 가보기로 한다.(103면)

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노인은 현실을 움직이는 공적, 사적 활동의 공간을 떠나고 사회적 타자의 자리로 밀려나면서 점차 잊혀지고 비가시화되기 때문이다. 한맥기로원과 같이 노인들만을 위한 고립된 시설은 인간 삶의 현장에서 배제된 노인의 존재 조건을 잘 반영하는 상징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저 의미 없이 목숨을 연장해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 주변화되고 타자화된 노인도 내면에는 어린 시절부터의 삶의 전 역사가 살아 있고, 이를 바탕으로 대단히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의식을 간직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노인은 현재의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에서 떨어져 있는 까닭에 그의 의식은 현재에 붙들려 있기보다는 구체적 ‘인간’으로서의 과거를 더욱 더 강하게 지향하게 되고, 그러한 과거 속 강렬한 기억에 지배되는 노인의 자기의식은 노인을 반쯤 망각된 무용한 존재로서 무심하게 바라보는 현재 세상의 시선과 날카롭게 대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립은 그들이 인간으로서, 즉 젊은 사람으로서 역사의 가장 극적인 소용돌이를 살아왔고 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강화된다.

현재의 ‘노인’과 과거의 ‘인간’ 사이의 이러한 극명한 모순을 이 소설은 우선 주인공의 호칭의 차원에서부터 드러내고 있다. 네 노인이 현재 한맥기로원에서 통용되는 호칭은 한여사, 초정댁, 윤선생, 김씨이다. 여기서 이름은 삭제되고 다만 윤선생에게 과거 직함이 남아 있을 뿐 모두 성으로만 혹은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불리는데 그것은 그들의 삶의 역사가 만들어낸 개인으로서의 고유성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우리가 잘 모르는 노인을 바라보는 무관심한 시선을 반영하는 익명화된 호칭이며, 자신의 모든 삶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노인의 자기의식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호칭이다. 그러나 소설의 서술자는 네 노인을 서술할 때 기본적으로 이 호칭을 사용한다. 연작소설 각각의 단편이 노인의 현재 일상에서 시작되는 것에 따라 주인공의 이름 역시 모두 한맥기로원 내에서 통용되는 호칭이 먼저 등장하고, 그들의 ‘진짜’ 이름은 과

거의 기억이 소환되는 순간에 비로소 나타난다.

그리하여 한여사의 경우 서술이 진행되면서 한점아가, 한경자, 게이코, 한안나와 같은 다른 이름들이 나타나는데, 그 다양한 이름은 식민지 시대의 가난에서 한국전쟁과 분단 고착화에 이르는 민족적 수난의 역사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윤선생의 본명 윤여은도, 조정택의 본명 금실이기도 과거 회상에서 비로소 밝혀진다.

현재와 과거의 호칭의 격차가 특히 큰 것은 바로 김씨이다. 그는 현재 거주 노인들의 소소한 용건을 처리해주는 한맥기로원의 사무장에 지나지 않지만 과거 일본 유학생으로 와세다대 철학과에 다닌 철학도이고 학도병 징집을 피해 만주로 피신했다가, 이후 중경 임시정부에서 필경사로 일한 바도 있다. 귀국한 뒤에는 한국전쟁으로 처자식과 생이별한 채 도서관 사서로 평생을 산 그는 역사의 질곡을 가장 극심하게 경험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현재 그저 잉여적이고 익명적인 존재인 ‘김씨’에 지나지 않고, 오로지 과거 회상에서만 자기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본명 ‘김중호’로 지칭된다. 외적인 호칭 ‘김씨’와 그의 내적 자의의식을 반영하는 호칭 ‘김중호’의 거리는 소설 속에서 현실과 과거의 기억이 뒤섞이는 가운데 두 호칭이 교차할 때 특히 크게 느껴진다.

거기 선 동무, 꿈쩍 마시라요! 명령에 이어 벼락치듯 따발총탄이 김중호 발 앞에서 흙고물 튀기며 터졌다. 오랫동안 걷지 못해 연약해진 다리가 폭삭 주저앉을 듯 후덜거렸다... (중략) 왜 그 얘기를 또 꺼내. 전쟁 후 한동안은 그때의 숨막히던 순간을 악몽으로 자주 꾸며 많이 울었지. 그럴 때마다, 잊고 살아야 한다고 골백번 다짐했어도 오십일 년이 지나도록 한시도 잊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어. 말을 잘못 꺼냈다는 듯 김형준이 옆머리카락을 쓸어붙이며 계면쩍어했다. 생각할수록 괴로울 그때 일이야 이제는 잊을 만한 연세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슬슬 나서보실까요. 김형준이 계산철을 들고 일어선다. 그래, 잊어가지. 슬픔을 삭이며, 또 한

번 다짐해볼까 사는 날까지 참고 견디는거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김씨가 비틀거리며 의자에서 일어서자, 모자 쓰셔야죠 하며 김형준이 옆
의자에 놓인 파나마모자를 집어준다.(311-312면)

인민군 치하의 서울에서 숨어 지내던 김중호는 서울 탈환 소식에 조바심을 내며 인민군이 이미 퇴각했으리라 기대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뜻밖에 마주친 인민군의 스리쿼터에 끌려 올라가 북으로 가게 된다. 남편이 월북했다고 오해한 아내는 딸 희옥을 업고 남편을 찾아 북으로 떠나고 그는 인민군과 함께 황해도 금천까지 갔다가 남쪽의 가족을 찾아 다시 서울로 돌아온다. 운명이 갈리던 날의 이야기의 주연은 김중호이지만, 그 회상이 제지당하고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그는 어느새 김씨로 돌아온다. 회상 속에서만 '김중호'일 뿐, 회상이 중단되고 현재로 돌아오고 나면 비틀거리는 노인 '김씨'일 뿐이다. 여기에서 비록 슬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지난 간 역사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노인은 과거의 기억을 재생함으로써 자신의 구체적 자아와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그 기억과 무관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거듭 좌초된다.

조국과 민족 앞에 초석이 되겠다는 대의는커녕 남아로서의 야망이나
기백조차 없는 나란 존재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그 얇은 도대체 무어냐. 그러나 그 어떤 해답도 잡히지 않았고 황톳
물에 몸을 던져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이를 실천할 결단력조차 없었
다. 작은아버지 다 왔어요. 김형준이 김씨를 흔들며 말한다. 김씨는 눈을
뜬다. 차 안이 쾌적해 그는 그새 잠에 들었던 것이다. 어, 그래? 여기가
어디야? 벌써 다 왔나 하곤 김씨가 조카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린다.
잠시 눈을 붙였으나 숙면이었고 머릿속이 개운하다. 그해 가을에 말야,
달포 넘어 걸렸나? 난생처음 지독한 고생을 했지. 나라는 인간은 체질적
으로 유약했는데 산전수전 겪으며 크게 견문을 넓혔으나 그 경험이 내

사고와 체질을 바꾸는 데 하나 도움이 되지 못 됐어. 말짱 헛고생만 했던 셈이지. 상해반점 현관으로 들어서며 김씨가 말한다. 김형준이 앞뒤가 잘린 삼촌의 말을 헤아리지 못해 의아해한다.(297-298면)

김씨/김중호는 꿈결에 ‘남아로서의 야망’은 없었지만 배운 글로 봉사라도 하려는 결심으로 임시정부에서 필경사로 일하던 과거에 빠져들었다가 이내 ‘작은 아버지 다 왔어요’라는 조카의 말에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다. 회상 속에서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민족에 대해 고민하는 자의식으로 충만한 인간 ‘김중호’가 현실에서는 차 안에서 금세 잠들어 버리고 부축을 받아야만 차에서 내릴 수 있는 노인 ‘김씨’에 불과하다. 그는 깨어나서도 과거 회상을 이어가듯 말을 계속하지만, 그건 허둥대고 혼란스러워하는 노인의 두서없는 발화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대조적인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발생하는 착란은 예를 들면 치매 상태가 된 한여사의 경우에 더욱 극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한 여사에게는 과거와 현재가 어떤 유사한 정황을 통해 그대로 이어져 있어서 더 이상 기억과 현실이 구별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과거가 상기되는 순간 곧장 과거를 재연하는 행동이 촉발되고, 이는 동시에 현실 속의 부적합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한여사, 정신이 좀 드요? 어찌자구 한밤중에 그렇게..... 그래도 우리가 찾아냈기에 다행이지. 광씨를 따라가며 윤선생이 말한다. 게이코 상은 내가 발견했기에 다행인 줄 아시오. 당신을 장교 숙소 취사원으로 쓰겠소. 저녁엔 장교 숙소에서 잠을 자도록 해주지. 장교들은 덜 야만스러우니깐. 여자를 부드럽게 다루지. 허허. 스스로 혀를 깨물었군. 내가 피를 닦아주리다. 소좌가 말하자, 초정택이 그 말을 받아 종알거린다. 쯤쯤, 혀를 깨물었군. 아무리 죽기로 각을 했어도 염라대왕이 불러야 저승길에 들지.(63면)

한밤중에 아카시아나무 숲까지 가서 누워버린 한 여사를 사람들이 발견하여 데려오는데, 윤선생이 한여사를 찾아내서 다행이라고 말하자 한여사의 의식 속에서는 오장의 손아귀에서 자신(케이코)을 구해준 소좌의 말이 떠오르고, 소좌가 혀를 깨문 케이코 상을 측은해하자 곧이어 초정택이 역시 혀를 깨문 한 여사를 보며 혀를 찬다. 혀를 깨문 것은 과거의 위안부 케이코이자 치매 노인 한여사 둘 다이다. 하나는 극한의 민족적 수난의 소용돌이에 빠진 한 개인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 결행한 용기 있는 저항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치매 노인의 무의미하고 기괴한 발악 같은 것이다. 노인은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았던 삶의 중대한 기억에 매달릴수록 현재의 현실에서 멀어지고 잉여적이고 무의미한 존재가 될 위험에 빠진다.

이러한 딜레마는 네 편의 연작 소설의 일관된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소설 각각은 별 다를 것 없이 반복되는 전형적인 노인의 일상에서 시작하지만 그 일상 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섞여들고 점점 더 강하게 현재와 충돌을 일으킨다. 노인은 이러한 충돌이 일으킨 혼란 속에서 정신과 육체가 무너지면서 병상에 눕는다. 결국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고 조카나 제자, 아들 며느리와 같은 후손과의 마지막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가장 깊게 자리한 기억의 심층부까지 모두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노인은 과거에 대한 어떤 해원도 하지 못한 채 마지막까지 괴로워하다 죽음을 맞는다. 그들은 모두 당시로서는 평균수명을 넘는 여든이 넘는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지만, 즉 어떤 의미에서 천수를 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은 불의의 사고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그것은 평탄해 보이는 상태와는 달리 그들의 내면이 격한 갈등과 충돌과 부조화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노인들을 그런 불행한 죽음으로 몰고간 기억의 핵심에 다가가 볼 필요가 있다.

3. '역사적 개인'의 삶의 구조와 유형학

네 명의 노인은 모두 1920년대 초반 생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1941년을 전후로 갓 성인이 되어 가장 폭압적인 일본 군국주의의 동원 체제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된 채 청춘기를 보내고(위안부 차출, 학도병 징집의 위협 등) 해방을 맞이한 후, 좌우 분열과 분단, 한국전쟁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은 인물들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의 길로 들어서서 한반도에 분단 체제가 정착되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기본틀을 결정지은 모든 사건이 불과 12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 이처럼 현대사의 기원을 이루는 역사적 격변의 시대를 소설 속 노인들은 인생의 기반과 정체성이 형성되는,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가장 중요하고 화려한 시기인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시간 동안에 살아낸 것이다. 그들은 이 시기에 모두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과 회복할 수 없는 삶의 훼손을 겪었고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살아남는 과정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과거의 기억이란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역사와 현실의 한가운데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도 하는 양가적 감정의 대상이다. 요컨대 그들은 모두 “우리 세대는 누구나 영욕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산 셈”(28면)이라고 말할 만큼 공적 역사의 변화가 곧 개인의 역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삶을 살았고, 그리하여 개개인의 삶이 곧 역사 자체이기도 하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개인인 것이다. 만일 20대의 경험이 한 인간의 인생 전체의 형태를 결정한다면, 그리고 이 연작소설의 네 인물이 모두 그 시기를 격변하는 역사의 결정적인 영향력 속에서 보냈다면, 그들의 인생 하나하나가 격동하는 역사적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의 결정체, 혹은 역사의 화석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네 노인의 이러한 삶의 양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여사(한경자)는 “몸 단장과 몸 간수가 첫째”(35면)라면서 “고대광실 큰 집에

서 공주같이 자랐”(69면)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돈벌이를 위해 열여덟에 부산으로 떠났던 가난한 시골 처녀 한집아가였다. 건빵공장 포장부 중업원으로 일을 시작한 그녀는 상사였던 일본인 모리가 독립하여 차린 제과점 여급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그의 첩으로 살게 된다. 그러던 중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에게 징발되어 남양에까지 끌려갔다가 1년 만에 겨우 살아 돌아온다. 해방 후에는 ‘양색시’로 생계를 영위하다가 미군 장교와 동거하여 아이까지 낳았지만 흑인 상사에게 성폭행 당하고 미군 장교에게서도 버림받은 뒤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 보낸다. 한여사는 훗날 혼자 제과점을 운영하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계속 남성들과 성을 거래하는 형태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한백기로원에 입소한 것도 그 남자들 중 한 명인 노회장이 남긴 유산 덕분이었다.

그 다음으로 초정택은 큰 도갓집 딸로 대갓집에 시집갔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도갓집 행랑아범의 딸 금실이었고, 대갓집에 시집갔다고는 해도 그것은 그 집 아들이 보통의 결혼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실이의 부모는 딸을 팔아 치우는 듯 시집보내는 것에 찼찼한 느낌이 있었는데, 정작 금실이는 어린 나이에도 적극적으로 이 결혼에 동의하고, 신분 상승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런 인물이 결혼 생활의 결손을 빈듯한 지식인 남성 우씨와의 사통으로 보상하려 한 것도, 그 관계가 들통날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씨를 남과 간첩이라고 거짓 밀고한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 밀고로 인해 마을 청년들이 모두 위험에 빠지고 우씨에게 방을 내주었던 시아버지는 경찰서에 불려가 고초를 겪고 그 후유증으로 죽게 되지만, 초정택은 어찌 됐든 그렇게 하여 종부의 자리를 지켰고, 훗날 “이때까지 박씨 집안 종부로서의 사명을 다 했습니다”(154면)라고 주장하듯 완벽한 ‘종부’를 연기하며 남은 생을 살아간다.

한여사와 초정택이 주로 자신의 삶을 위장하고 과시한다면 이후 등장

하는 두 명의 노인은 이와 대조적으로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을 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중 윤선생은 가난한 소작농의 딸이지만 어린 시절 교회에 나가 미국인 선교사를 만나고 그의 후원으로 사범학교를 졸업하여 교사가 된다. 윤선생은 태평양전쟁 시기 ‘조선인은 어디까지나 조선인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다가 해방 이후 교단으로 돌아온다. 해방 정국에도 정치적 입장에서 거리를 두려 하지만, 아버지가 좌익 활동을 하다가 수장되고 어머니는 자살하며 본인은 아버지 때문에 고문까지 당하는 등, 비운이 거듭된다. 그래도 무사히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던 윤선생은 독신으로 지내며 깊은 신앙심으로 평생 교직에 헌신한다. 마지막으로 김씨(김중호)는 큰 제재소 경영주의 아들로 와세다대 철학과 재학 중 태평양 전쟁 학도병 징집을 피하기 위해 만주행을 택한다. 그는 거기서 동포들의 비참한 삶을 목격하고 중경으로 가서 임시정부의 필경사로 일하기도 하지만, 정신착란 증세로 중국 국민군 요양소에서 지내게 된다. 해방 후 귀국한 그는 1950년에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길 잃어 갈려 아내와 딸과 영영 헤어지고 만다. 이후 이산가족의 운명을 안고 정치와 이념에 대한 회의주의에 빠진 채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평생 책 속에 파묻혀 현실에서의 도피 생활을 이어간다.

이러한 간략한 요약에서도 드러나는 것은 대단히 이질적인 네 인물의 삶에 동일한 공적 역사의 조건과 사건들이 하나의 상수처럼 개입하며 그 행로를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가난한 집 딸들은 객지로 보내지거나 부잣집에 팔려가고 미국인 선교사의 집에 맡겨지기도 한다. 태평양전쟁은 젊은 여성과 남성의 삶을 위협하고 분단과 상이한 체제와 이념 사이의 전쟁은 어디에서나 심각한 가족적 비극을 초래한다. 이러한 개인사와 역사의 보편적 뒤얽힘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태평양 전쟁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난 뒤에는 공적 역사라는 배경이 희미해지거나 아예 사라져 버린다는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네 주인공은 그 후부터는 청춘의 십여 년 사이에 결정된 운명을 버텨내면

서 삶을 연장해 온 것으로 서술된다. 이후의 긴 삶은 사사로운 후일담일 뿐이다. 이 '후일담'에서는 정치적 변동이나 중대한 사회적 사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런 언급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적 삶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적 개인도 다 같은 개인은 아니고, 역사가 개인사 속에 개입하는 양상, 개개인의 삶 속에 남기는 결정의 형태도 개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것은 김원일이 공통적 역사에서 출발하면서도 그 역사성이 개인의 삶을 통해 구현되는 다채로운 방식에 주목하고 그 차이를 부각시키는 데에도 매우 공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다시 그 구체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통해 그 저변에 있는 더욱 심층적인 보편성을 드러낸다.

이를 위해 작가는 역사적 개인의 유형학을 구상한다. 시차를 두고 차례로 발표한 소설들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작가의 이러한 유형학적 구상이 미리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우선 전반부 두 편과 후반부 두 편 사이의 뚜렷한 대조에서부터 확인된다. 전반부의 한 여사와 초정택의 삶이 육체, 감각, 물질적 욕망 등의 키워드와 연결된다면, 후반부의 윤선생과 김씨는 정신, 지성, 이성을 대변한다. 이러한 대립은 역사가 개인의 삶 속에 개입하는 방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전반부에서 역사가 곧바로 주인공의 몸과 욕망을 관통하고 이와 얽혀든다면, 후반부에서 역사는 개인의 정신적 고뇌와 반성을 거쳐 삶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한여사와 초정택의 경우를 보자. 일본인 사장의 첩에서 위안부와 양색시의 삶을 거쳐 혼혈 자식을 미국으로 입양 보내기까지 한여사의 삶은 한민족이 외세에 겪은 수난의 역사를 표본적으로 보여준다. 한여사는 이러한 수난의 역사를 무엇보다 자신의 몸으로 겪었고 몸의 기억으로 지니고 있다. 즉 역사는 한 개인의 몸에 얽혀 있고 그 몸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그 과정의 극단에 다음과 같은 미군 흑인 상사의 성폭행 장면이 있다.

한안나의 영어가 서툴렀던지 사내의 완력은 막무가대였다. 치마폭이 찢어졌다. 매가 닭을 채듯, 육중한 팔다리로 잡아채 누르는 사내의 힘에 그녀는 꿈쩍달쩍할 수 없었다.(중략) 아니, 제발 날 살려줘. 순간, 방앗공이가 내리찍듯 무엇인가 쑤시고 들어오자 아랫도리가 찢어질 듯 아팠다.(65면)

그렇다면 한여사가 끊임없이 화려하게 화장하는 것은 단순히 늙은 몸을 감추려는 것을 넘어서 몸에 새겨진 수치의 삶, 수치의 역사를 숨기려는 시도, 혹은 자신의 몸을 훼손한 역사로부터 자신을 어떻게든 지켜보려는 저항의 시도라 할 수 있겠다.

다음 인용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초정택의 회상에서도 몸과 색슈얼한 경험에 대한 기억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초정택은 서방이 아니라 이씨와 우씨만 떠올리면 살을 저미던 젊은 날의 미쳐버릴 것 같던 정육과 거센 버들내 황토 물살이 함께 떠올라 마음이 금방 덥게 달아오른다. 그 연상은 불안과 쾌감이 절묘하게 섞인 소마소마한 흥분의 진저리침이었다.(89면)

그런데 초정택의 “젊은 날의 미쳐버릴 것 같던 정육”과 “소마소마한 흥분의 진저리침”(89면)은 한경자가 일본인 사장에게서 배운 “성의 짜릿한 맛과 이치”(26면)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것이며, 역사적 수난이나 수치의 기억과는 관련이 없다. 특히 초정택의 정육은 초정택, 즉 금실이 시 집가기 전 안방마님이 걱정했다는 “끓는 성정”(143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방법 가릴 줄 모르는 몰가치적인 욕망의 한 양상일 뿐이다. 그 덕택에 초정택은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희생되지도, 밀려나지도 않는다. 극히 사적인 욕망과 그것을 위해 어떤 다른 가치도 파괴할 수 있다는 무자비함에 힘입어 초정택은 역사의 파고를 넘어온다. 우씨

와의 관계도 욕정의 해소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질병이 있는 남편 대신 학식 있는 남자의 “좋은 씨종자”(134면)를 받아내 우수한 후손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 목적을 무사히 이루어내기 위해 초정택은 우씨를 빨갱이라고 밀고한다. 그 결과 누명을 쓴 우씨는 자살하고, 밀고의 여파로 시아버지도 경찰서에 끌려가 고초를 겪으며 후유증으로 죽음에 이른다. 그녀는 우씨와의 내연 관계를 알고 협박한 이씨와도 정분을 나누다가 결국 다리에서 밀어서 죽이기까지 한다.

초정택이 우씨를 밀고하며 스스로를 ‘멸공 정신을 가진 종부’로 정체화하는 다음 대목은 어떻게 개인적 야망이 역사적 구도를 이용하고 역사를 알리바이로 끌어대는지, 어떻게 사적인 욕망에 매몰된 개인에게 이념으로 포장된 역사적 갈등과 투쟁이 은신처를 제공해주는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 집안이 빨갱이들한테 모질게 당했으니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신 멸공정신 애국심에서 제가 신고한 거고, 이 비밀만은 절대 보장해주셔야 해요.(140면)

여기서 공적인 역사에 대한 무관심, 사적인 이해관계에 역사를 종속시키는 몰가치적 태도는 개인이 역사의 격랑에서 살아남는 영리한 방어막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그것은 타인을 그 격랑 속으로 밀어 넣는 죄악을 저지르기로 감수한 자의 방어막이다. 이씨를 다리 아래로 떠밀어 거센 물살 속에 빠뜨린 초정택의 행위는 상징적이다.

연작소설의 후반부 두 편은 앞의 두 편과 대조적으로 정신적 성향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또 다른 유형의 역사적 개인을 그려낸다. 그들은 어떤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가,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반성적 의식을 가진 인물들이고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극한의 역사적 경험은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의식을 더욱 첨예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역사와 개인적 삶은 그러한 정신적 차원을

매개로 서로 연결된다.

우선 윤선생은 어린 시절 언청이 입을 고쳐준다는 말에 교회에 다닌 뒤 미국인 선교사 집에 들어가 양녀처럼 자라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깊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이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 격변은 윤선생의 삶에도 큰 위기를 가져온다. 인민군 치하에서 간호원 활동을 했던 윤선생은 아버지의 좌익 행적과 엮여 취조를 받고 고문을 당한다. 형사에게 겁탈당할 뻔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다른 형사가 들어와 이를 가로막음으로써 위기를 넘긴다.

유수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와 유수교회 교인들은 윤선생이 수감 생활을 겪자 경찰서 마당까지 물러갔다. ‘모범적인 선생이요 진실한 기독교인’이란 그들의 탄원이 주효했고, 이런 업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를 그날까지 금식하겠다고 열흘 동안 버틴 끝에 탈진상태에 이르자, 그녀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간신히 풀려났다.(224면)

아버지의 좌익 활동과 이에 따른 윤선생 가족의 비극적 운명은 한국의 이념 전쟁이 개인의 인생에 침투하는 한 전형성을 보여준다. 윤선생의 신앙도 첨예화된 비극적 위기의 순간에 어떤 균열의 조짐을 보이지만, 그리스도에 끝까지 의지하며 탈진에 이르도록 금식하는 데서도 드러나듯이 그녀는 극한에 이르는 심신의 고통 속에서도 역사가 개인의 삶에 가져온 시련을 정신과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려 한다.

마지막 주인공인 김씨의 이야기도 개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뜨리는 역사적 시련에 대한 정신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윤선생의 이야기와 연속적으로 읽어볼 수 있다. 김씨, 즉 김중호는 법학을 전공하라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철학을 선택하였는데, 청소년기부터 “세상만사가 시들해 우울증”(287면)을 앓다가 쇼펜하우어를 비롯한 독일 관념철학과 만났기 때문이다. 학도병으로 징집되지 않기 위해 중국 대륙을 다니면서 그

가 발견한 동포의 비참하고 비굴한 모습은 삶의 무의미함에 대한 그의 생각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지식인으로서의 일말의 책임감으로 임시정부의 필경사로나마 독립에 기여하고자 했으나 그 일도 끝까지 버텨낼 힘은 없었고 조울증에 시달리는 상태로 해방과 함께 귀국한다. 그는 혼란스러운 정국을 방관자로 바라보면서 존재의 우연과 부조리를 이야기하는 사르트르의 『구토』와 『존재와 무』에 매료되어 “내면이란 등우리에 꼭 박혀”(271면) 난세를 버텨보려 하나, 전쟁은 다시 그에게서 아내와 딸을 빼앗아 가고, “서울 수복 때 북괴 무리를 쫓아 월북”(329면)한 죄로 용공분자로 분류되어 잠시 구속되기까지 한다. 실성한 사람처럼 딸을 찾아 고아원을 돌아다니다가 의심을 사서 다시 경찰서에 잡혀왔을 때, 그는 대공과장 앞에서 이렇게 항변한다.

난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라고 분질러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 나는 어느 쪽에 살아도 그만인, 그저 맡겨진 일이나 열심히 하고 책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또한 나를 자해하면 했지 필 부수거나 남을 해코지하는 행패를 부린 적도 없고요. 머릿속에 아기 울음소리며 총소리가 자꾸 들려, 그게 미치겠어요. 그렇다고 수갑을 채워 유치장에 또 가둬놓진 않겠죠? 몽둥이질에, 잠안 재우는 고문을 하지 않겠죠? 다시 그러면 난 정말 미쳐버릴거예요.(330-331면)

이처럼 김중호에게 역사의 격랑은 개인의 신변과 가족의 삶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힘인 동시에 끊임없이 존재와 삶 자체의 의미에 대해 반추하게 만드는 근원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념의 분열이 가져온 혼란상과 분단의 비극적 역사는 그를 어떤 이념도 믿을 수 없는 ‘회색인’으로 만든다. 임시정부에서 어떤 역할이라도 하기 위해 중경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염세적 회의론자”(297면)의 성향으로 머뭇거리는 자신을 자책하던 그였지만 결국은 무엇에도 쉽게 현혹되거나 성급하게 믿어버리지 않는 회의적 지

성이 자기 존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이라는 생각에 기운다. 그는 평생 도서관 사서로서 자기를 지켜줄 지성의 세계에 파묻혀 지낸다. 김중호는 당대의 철학서를 모두 섭렵하며 시대의 흐름을 이해해보려 애쓰고 사르트르나 발레리, 도스토예프스키의 관점에서 세상을 파악한다. 윤여사가 종교로써 역사가 훼손한 것들을 보충하고자 했다면 김 씨의 경우엔 책, 지성이 그 방편이었다. 두 노인 모두 종교와 이념, 정신적인 것으로써 자신의 삶을 설명하고 역사와 관계한 인물들이었다.

이로써 네 명의 노인은 역사적 개인으로서의 유형성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고난의 역사(수치의 역사)를 모두 몸으로 겪은, 섹스가 곧 역사였던 삶을 산 한여사의 혼종적 정체성, 그리고 어떤 의구심도 없이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하면서 역사를 일종의 시류처럼 타며 살아낸 초정대, 시대의 고초를 겪었으나 종교적으로 일정의 보호를 받으며 성소 안의 삶을 선택한 윤선생, 지성과 추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도피처로서 도서관을 택한, 자기 한계를 인식하는 나약한 지식인인 김씨. 그렇다면 네 남녀 노인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인생과 역사적 현실 전체, 역사 속의 인간과 인간을 통해서 본 역사를 모두 이야기하고자 하는 (작가의) 욕망이다. 그것은 육체의 역사이자 정신의 역사이며, 욕망의 개인이 살아온 역사이자 정신적 개인이 살아온 역사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전반부의 두 주인공과 후반부의 두 주인공 사이에 설정된 몸과 정신, 물질적 욕망과 정신적 가치의 이분법이 어떤 도덕적인 선악의 이분법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서로 얽혀 있고 그 대립도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씨의 정신적 삶과 태도는 공부를 계속 하고 일본 유학까지 다녀올 수 있게 해준 재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에게는 큰 재재소를 경영하며 일본 유학을 보내줄 뿐만 아니라 만주로 도피하기 위한 피신 자금까지 대준 아버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 점에서 오직 생존 자체가 시급한 문제여서 딸을 무작정 대처로 떠나보내거나 장애를 가진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보내야 했던 한여사와 초정택의 집안 배경과 큰 차이가 있다. 윤선생도 가난한 소작농의 딸이지만, 제임스 목사의 양녀로 받아들여졌기에 전혀 다른 차원의 물질적, 정신적 기반을 갖추게 되고, 그 위에서 삶과 역사에 대한 정신적 태도가 형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김원일의 유형학은 그런 점에서 혈혈단신으로 삶을 개척해낸 인물과 일정한 물질적 기반과 보호 속에서 조용하고 소극적인 삶을 산 인물 사이의 대비를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죽음 전후: ‘어두운 카니발’의 의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000년경 80세 전후의 나이가 된 네 노인은 모두 천수를 누린 인물들이다. 그들은 어떤 불의의 사고나 불운, 때이른 병 등으로 삶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모두 누린 사람들이다. 그리고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역사의 격랑을 넘기 위해 혹은 험악한 역사가 안겨준 훼손을 감내하고 그 훼손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에 매달렸고 그것을 위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평생 노력해왔다. 그런 인물들이 자연적 수명을 다 누리고 죽음에 이른다면, 우리는 그들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이루어 생의 전체적 의미를 완성해줄 것을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된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천수를 누린 그들의 죽음이 여전히 너무나 당혹스럽고 갑작스럽게, 공포스럽게 찾아온다는 데 있다.

네 노인의 죽음은 오히려 균열이 드러나는 순간, 믿었던 가치가 전복되고 파괴되는 순간, 현실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안간힘을 쓰고 쌓아올려온 삶의 어떤 의미가 붕괴하는 순간으로 나타난다. 이를 바흐친이 말하는 카니발화의 과정이라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바흐친이 말했듯 카니발적 상황에서는 엄숙한 진리와 도덕의 가치가 전복되고

진지함과 경건함,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고귀한 것과 비천한 것 사이의 위계질서가 흐트러진다. “격하”, “저속화”, “육화”¹⁷⁾ 즉 “고상한 것의 저하”¹⁸⁾는 카니발의 근본적인 특성이며, 위대한 것과 보잘 것 없는 것이 섞이고 삶의 중심은 육체에 집중되어 성적인 것이 부상하며 상소리와 저주가 분출된다.¹⁹⁾ 『슬픈 시간의 기억』에서 죽음은 바로 이러한 카니발적인 격하와 저속화, 육화를 초래하는 사건이다. 이는 김원일이 죽음을 -그 것이 자연적인 삶의 시간이 다한 뒤에 도달하는 종착점이라 하더라도- 인생이 의미 있고 조화로운 하나의 전체로 완결되는 마무리 지점으로 보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죽음이 가지는 카니발적 성격은 우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네 노인이 살고 있는 한백기로원이라는 공간 자체에 반영되어 있다. 한백기로원은 어떤 곳인가? 이곳은 입주금만 있다면 누구나 받아주는 곳이며 한백기로원 밖에서의 과거가 어떤 것이었던 요양원에 들어온 순간 모두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으로서 평등해진다. 차관마님과 초정댁이 한테 묶여 있는 곳이며, 평생 남자들에게 경제적 원조를 받으며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 온 한 여사와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성처녀의 삶을 산 윤선생이 함께 하는 공간이다. 와세다대 철학과 출신의 엘리트 지식인과 배움이 없이 음담패설만 일삼는 초정댁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공간이다. 즉 세상에서의 귀천이 뒤집히는 곳이다. 개개인 각자의 생애가 갖고 있던 어마어마한 차이는 다 지워지고 모두 함께 평등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아주 특수한 말년

17) 미하일 바흐친, 이덕형, 최건영 역, 『프랑스어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아카넷, 2001, 49면.

18) 위의 책, 50면.

19) 박희경, 「카니발적 웃음- 토마스 부르시히의 『우리같은 영웅들』 분석」, 『독일문학』 108권, 한국독어독문학회, 2008, 172-173면. 바흐친은 중세의 카니발 문화를 분석하면서 엄숙한 가치의 위계질서를 전복시키고 해체시키는 데 따른 해방과 생성을 이야기하지만 이 글에서는 기존 가치의 전도와 전복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어두운 카니발’이라는 수사를 사용하였다.

의 공간인 셈이다. 고귀한 것과 천한 것,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탐욕과 자기 절제, 유식과 무식, 모든 차이가 지워지는 공간인 한택기로원은 다양한 유형의 역사적 인간을 연작 형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틀로서 그들의 생애를 묘하게 엮으면서 서로를 상대화하고 부정하는 효과를 일으킨다²⁰⁾ 특히 여기서 생활하던 네 명의 노인이 각자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맞는지와 관련해 생각해보면 이러한 공간의 상징성은 더욱 뚜렷해진다.

다시 한번 한여사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한여사는 “고대광실 큰 집에서 공주같이 자랐”(69면)다고 주장하며 ‘미 군사고문단 문관이었던 남편을 한국 전쟁 때 잃고 하나뿐인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귀부인’으로 자신을 포장한다. 나이에 맞지 않아 그로테스크하기까지 한 그녀의 화장은 일종의 가면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아한 귀부인의 품위에 걸맞은 독서와 음악 감상 취미 역시 그러한 가면의 일부인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훼손당한 삶을 잊게 하려고 한 그 모든 노력은 치매에 걸림으로써 일순간에 수포로 돌아간다. 치매를 앓게 된 한여사는 어느 봄날의 방향(芳香)에 이끌려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향기는 그녀의 성감을 직접 자극하고 야산 아래 숲에 쓰러져 자위행위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그녀는 향기에 취해 눈을 감는다. 땀 굽는 그윽하고 구수한 냄새가 난다. ‘접근하면 발사함’이란 영어와 한글 팻말이 붙은 미군부대 철조망 주변을 난 영영 떠났다. 국제시장 난전에서 미제 물건을 팔다 땀 먹는 풍미를 못 잊어 내가 차린 첫 제과점 이름이 뭐였나?... (중략),,, 한여사는 열

20) 그 속에서 양공주를 농락하는 미군과 소녀를 경건한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는 미국인 선교사 가족의 이야기가, 정부와 쾌락을 즐긴 후에 그를 다리 아래로 빠뜨려 죽인 여자의 잠재적 공포와 성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다가오는 남학생을 뿌리치다가 열차 아래로 떨어져 죽게 만든 여학생의 죄의식이, 백세 삶을 꿈꾸며 계놈 지도의 완성을 반기는 초정택의 욕망과 세로 나온 〈계놈〉이라는 책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고투하는 김씨의 욕망이 대조적이면서도 서로를 반영하는 짝패로 나타난다.

락에 취해 잠옷을 헤치고 고쟁이 안으로 손을 넣는다. 미나리가 뿌리를 내리려 찾아들 듯, 장지를 질에 박고 어른다. 코로 숨가쁘게 향기를 빨아 들인다. 건조한 질 속이 따갑고 쓰리다. 망측하게, 손가락은 거기다 왜 쭈셔박고 있지? 맨발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자빠졌다니. 잠결에 귀신이 이 여편네를 불러냈나봐. 초정택 말소린지 윤선생 말소린지 알 수 없다.(49-51면)

강렬한 성감과 이에 결부된 몸의 기억은 아직 치매 상태가 되기 전 자기 자신의 내면적 회상에서조차 조심스럽게 감추어 두었던 수치스러운 성적 착취와 수난의 기억을 끌어올린다. 여기서 일본인의 애첩 게이코로 살던 한여사가 위안부로 남양에 끌려갔었다는 것, 해방 후 미군 장교와 동거하기 전 안나라고 불리는 양색시의 삶을 살았고 또 다른 미군에게 성폭행당하고 장교에게도 버림받은 뒤 아이마저 미국으로 입양 보냈다는 것이 비로소 독자에게 드러나고, 이와 아울러 길바닥에 쓰러진 한여사를 발견한 초정택을 비롯한 다른 요양원 사람들도 한여사의 횡설수설하는 말을 통해 그러한 비밀을 짐작하기에 이른다. 그로테스크한 가면이 벗겨지자 그녀는 “귀부인”에서 “양공주”(69면)로 전락하고 만다. 그것은 왕이 바보가 되는 전형적인 카니발적 폐위의 장면이다.

귀부인이라더니 품위없게 쌍욕까지 입에 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출신 성분이 의심이 간다니깐. 광대택이 완전히 돌아버리니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는군. 양공주 출신 맞죠?(69면)

한여사에게 치매로 인한 혼란 상태가 결정적 타격을 가한다면, 초정택을 무너뜨리는 것은 뇌졸중이다.²¹⁾ “처녀 적도 푹 소리나게 말 잘한다는

21) 노인들이 겪는 질병의 의미에 집중하여 초정택의 뇌졸중, 김씨의 망막박리 등을 설명하며 자신들이 원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질병을 통한 생의 아이러니”(김은

말을”(161면) 듣고 자랐고, 말을 못하는 중증 복합장애인인 남자에게 시집 오는 바람에 “더욱 수다쟁이가 될 수밖에”(161면) 없었으며, 살기 위해 “말 잘하는 변호사라도 되어야”(161면) 했던 초정택, 그 영리함과 언변으로 우씨를 밀고하고 이씨를 숙여넘겨 적어도 세 남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뒤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낸 초정택이 결국 말년에 갑작스러운 뇌졸중 증상으로 혀가 굳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 뇌졸중이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관한 악몽과 함께 찾아온다는 것은 “자기 한 몸 보신하자면 살인인들 대수인가요.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109면)라고 태연하게 말하던 그녀도 실은 평생 죄의식에 시달렸고 결국 그로 인해 치명적 징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꿈속에서 이씨가 추락하여 빠진 버들대를 내려다본다.

장터택(초정택, 인용자)이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며 나직이 안도의 숨을 쉬는 순간, 갑자기 사내의 얼굴이 살래다리 물 아래서 불쑥 솟아올랐다. 에그머니나! 그네는 혼비백산해져 물에서 솟아오른 얼굴을 보니 이씨가 아니라, 방구석에 박혀 운신조차 힘든 해골 같은 모습의 서방 얼굴이었다. 천하에 몹쓸 악독한 년! 네 년이 방앗간 이서방 주둥이 봉하겠다고 술 처먹여 여기에서 밀어쳐 죽였지. 난 알아. 방구석에 들어앉았어도 다 알고말고, 천벌을 받을 년! 선량하고 과묵한 우훈장을 후려내더니 사통한 죄를 감출 요량으로 네년이 경찰서에 고자질했잖아. 결국 그 선비를 네년이 죽게 만들었어. 그 일로 아버지와 마을 청년들이 경찰서로, 방첩대로 불려 다니며 얼마나 고초를 겪었어! 얼굴이 퐁퐁 불어터진 서방이 천둥 치듯 내질렀다.(153면)

이 꿈을 꾸는 날 밤 혀가 굳고 몸이 마비되는 증세가 찾아오고 초정택은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 병어리라고 업신

정, 앞의 글, 349면)를 볼 수 있다고 분석하는 김은정의 논문이 있다.

여기던 남편이 꿈에 나타나 준엄한 심판의 말을 퍼붓고 그로 인해 초정택 자신이 병어리가 되는 카니발적 전도가 일어난다. 평생 구업을 짓던 초정택은 말을 상실함으로써 죄의 근원이자 자신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중증장애인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을 따돌리고 집안의 땅을 우씨와의 사이에서 얻은 잘난 아들 박정필 부부에게 몰아서 주려던 필생의 계획도 그 바람에 흐트러지고 만다. 초정택은 죽음이 가까워오는 상황에서 겨우 유언장을 작성하고는 변호사 공증도 받지 않고 김씨와 윤선생에게 증언 서명을 부탁한다. 초정택이 죽은 뒤 유언장이 공개되자 기대하던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된 딸 초정이는 과연 “유언장이 상속법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변호사 공증이 없으니 무효라며 따지고 들었다.”(200면) 본인의 시신 앞에서부터 시작된 자식들 사이의 상속 분쟁은 또 다른 차원에서 초정택의 실패를 보여준다.

윤선생의 경우 죽음은 아주 갑작스럽게 오지는 않는다. 그녀의 죽음은 특히 초정택의 죽음과 대조를 이루며 소설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녀는 한맥기로원에 들어오기 전 76세 때 앓았던 신장증이 점차 악화되어 신장암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죽음의 원인이 된다. 윤선생은 한여사처럼 화장으로 젊음을 꾸며내려 하지도 않고 현대의학의 힘으로 어떻게든 오래 살아보려 하는 초정택의 태도와도 거리가 멀다. 그녀는 종교인으로서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고, 특히 어린 시절 제임스 목사의 어머니인 마리아 할머니에게서 목격한 “믿음이 강한 자의 편안한 임종”(196면)이 그녀의 신앙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윤선생은 심지어 초정택의 돌연한 죽음에도 그러한 축복이 깃들어 있다고 느낀다.²²⁾

22) “윤선생이 아침에 깨어나보니 옆자리 초정택이 미라처럼 반듯이 꿈쩍 않고 누워 있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자는 이의 얼굴을 보니 살아 있는 자의 잠이 아니었다. 눈을 감고 아주 편안한 표정인데 얼굴 피부가 푸르죽죽했으며 숨쉬는 기척이 없었다. (중략) 병어리 서방을 만나 네 혀가 심히 고생했으니 말년에는 내가 네 혀를 쉬게 해주마고 주님이 잠지하셨는지 모

당연하게도 윤선생은 자신에게도 그런 복되고 평화로운 죽음이 오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예수를 영적으로 모셔 그분의 평생 신부가 되기로 마음으로 서약”(229면)을 하고 그 서약을 지키며 평생을 산 그녀에게 신은 바로 그 소망을 들어주지 않는다. 윤여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은 죽음이 온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죽음이 오는 극렬한 방식이다. 그녀는 “불에 달군 쇠로 오장육부를 지지는 듯한”(253면) 고통을 겪는 가운데 특히 초정택의 죽음과 자신의 처지를 대비시키며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허환이 윤선생의 환자복 가슴팍을 여미어주며 말하자, 그네의 찡그린 얼굴이 조금 펴지더니 눈을 감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초정택은 자는 잠에 편안히 세상을 떠났는데, 저에게는 왜 이렇게 격심한 고통을 주시나요? 차관 할머니나 한여사처럼 차라리 고통조차 알지 못하는 치매는 오지 않고, 생살 찢는 이런 고통을 주시다니.(254면)

온갖 부정행위와 무고, 살인으로 더럽혀진 삶을 살아온 초정택은 편안히 눈을 감고 성처녀로서 신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윤여사에게는 지옥의 형벌 같은 요란한 죽음의 고통이 내려지는데, 이러한 예상 밖의 사태는 삶에 상응하는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무자비하게 무너뜨린다. 살아생전의 ‘선’과 ‘악’의 가치 대립이 죽음 앞에서는 완전히 무의미해지고, 죽음은 생의 가치를 전도하고 파괴하는 카니발적 힘으로 나타난다. 특히 윤여사가 겪는 뜻밖의 죽음은 바흐친이 카니발적 정신으로 충만한 작가라고 보았던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 집안 형제들』의 등장인물 조시마 장로를 떠오르게 한다. 존경받는 조시마 장로가 죽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던 신도들은 죽은 지 세 시간도 지나지 않아 아주 지독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자 당혹스러워하며 수군거리기 시

르지만, 그네의 마지막은 고통 없이 생을 하직한 복받은 죽음이었다.”(198면)

작한다. 바흐친은 이러한 “부패의 향기”에서 어떤 특정한 종교적 사상이나 철학 이념으로 환원되지 않는 도스토예프스키의 고유한 예술적 입장을 확인하는데,²³⁾ 윤여사의 죽음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

김원일 역시 성자에 가까운 인물에게 뜻밖에 찾아오는 저주스러운 죽음이라는 카니발적 모티프를 분명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의식하며 그 작품에서 차용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바, 이러한 짐작을 뒷받침하는 것은 마지막 작품인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에서 김씨의 입을 통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도스토예프스키를 거듭 환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씨는 조카에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인류의 필독서로 추천하고 (288면), 상해에서 동거하다 죽은 초연을 도스토예프스키의 첫 아내이자 병으로 일찍 사망한 이사에바와, 전처와 후처는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지순한 사랑을 바친 안나 스니트카니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도스토예프스키와 동일시하고 있으며(333면), 더 결정적인 것은 김씨가 자신이 죽은 다음을 걱정하며 ‘시체 썩는 냄새’를 언급하여 조시마 장로의 일화를 암시한다는 점이다. “암, 완전히 죽은 송장이고말고, 송장은 썩어. 나를 관에 넣어 못질 팡팡해서 묻지 말고 화장으로 장례를 치러줘요, 밀폐된 널 안에 시신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어요.”(336면)

조시마 장로의 악취 앞에서 당혹스러워하는 신도들처럼 윤선생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 의문을 품게 되는데,²⁴⁾ 이러한 빈틈을 파고들어 죽어가는 그녀 곁에 나타난 것은 바로 죽은 빨갱이 아버지의 환상이다. 그저 환상이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옥에서 악령의 교시”(243면)를 받은 채 나타난 듯 보이는 아버지는 작품 후반부에 상당히 긴 시간

23) Mikhail Bakhtin, Edited and Translated by Caryl Emerson,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p. 298 참조.

24) 평안한 죽음 대신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죽어간 윤선생을 보며 제자 역시 “평생을 육영과 선교에 바치며 성처녀로 사시다 이렇게 돌아가시다니”(256면)라며 허탈해한다.

동안 윤 선생의 ‘회의’를 자극하고 그녀가 살아생전 가졌던 믿음과 가치를 균열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수?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찢찢매매 허둥대냐? 네 마지막 꼴이 가관이다. 나와 한돌이는 그렇게 죽지 않았어. 폐속까지 물이 차자 육신의 고통이 아닌 순간적인 공포로 혼비백산되곤 까무러쳤으니, 이승을 떠난 그후로는 나도 몰라. 편안한 죽음이 찾아왔겠지. 너도 봤지? 초정택의 죽음을. 그 여편네는 살아생전 그렇게 흉측한 죄를 지었으나 입원도 하지 않았고 고통도 없이 자는 잠에 곱게 죽었다고....(중략)... 선교사? 그 양코쟁이야들이야말로 예수 이름을 미끼로 이 땅에 들어와 집 안에 여럿 몸종을 두어 제 식구 몸 편케 하고,, 사악한 양놈 장사꾼 패거리의 동패가 되어 온갖 박래품을 풀어먹이는 것은 물론이고 금광, 석유, 담배, 설탕이권에까지 끼붙었지 않았냐... (중략)...아버지가 지옥에서 악령의 교시를 받고 있음이 틀림없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윤선생은 목소리의 실체를 찾아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네 알 바 아냐. 나는 다만 내 육신이 살았던 이승에 원한이 맺혀 그 땅 산야를 떠도는 유령일 뿐이야....(241-243면)

“천당이니 지옥이니 하는 헛소리”(243면)는 책상물림의 거짓 엄포라며 아버지 악령은 미국 선교사들의 숙내를 폭로하고 “죄 없는 동족을 해방공간과 전쟁 전후 백만 명 넘게 학살한 예수쟁이 이승만”(243면)을 고발한다. 어찌면 이 아버지 악령의 형상은 빨갱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 어머니까지 자살로 생을 마감한 비극을 겪은 윤선생이 애써 좌익 사상을 멀리하기 위해 눌러왔던 의구심, 이를테면 기독교로 대표되는 미국적 가치, 선교사의 양녀로 자리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된 우익적 가치가 정말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죽음 직전 분출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윤 선생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가로막고 갑자기 등장한 제임스 목사의 혼령이다. 죽은 제임스 목사가 나타나 자신

은 한국 땅에 와서 “병든 자를 돌았고 육신이 주린 자를 구제하기에 힘 썼”(244면)다고 주장한다. 아버지 악령 역시 이에 맞서서 “저 자기도취에 빠진 교만한 언사를 들어보라고, 어디 저만 잘났고 저만 그런 일을 했 나?”(244면)며 제임스 선교사와 논쟁을 벌인다. 윤선생은 ‘두 아버지’, 즉 실제 아버지와 정신적 아버지인 두 사람의 영혼이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것을 말리지도 못하고 괴로워할 뿐이다. 심지어 마지막엔 그녀가 젊은 날 거적집 아래에서 만났던 시주승까지 나타나 모든 생각을 뒤흔든다. 불편한 몸으로 구걸해서 장애인 행려자를 돌보던 시주승의 영혼은 “서로가 믿는 종교를 초월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 참된 뜻을 깨달았다면 부끄럽지 않게 살라”(247면)며 윤선생에게 일침을 놓는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벌어지는 이 장면에서는 그녀가 살아생전 경험한 모든 가치들이 뒤섞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별할 수 없는 아노미 상태가 연출된다. “순박한 인민을 능멸한”(243면) 미국 선교사를 비판하고 “계급없는 평등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들을 구출하러 나섰던”(245면) 실천가들 편에 서는 아버지의 좌익 사상, 한국을 안식처로 삼아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제임스 선교사의 기독교로 대표되는 미국적 가치, 그리고 모두를 부정하는 시주승의 사랑의 실천적 가치. 윤선생이 한국땅에서 경험한 가치들이 영혼의 형태로 나타나 한바탕 뒤섞이는 것이다.

윤선생이 평생 철저히 기독교적 정신을 지키며 전도에 힘써온 것을 생각해본다면, 이는 마치 그녀의 의식을 평생 옥죄어온 사상적 고삐가 풀리면서 그 속에서 유지되어온 어떤 성스러운 질서가 붕괴해가는 어두운 카니발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제 의식의 저층에 억눌려 있던 다른 이념과 가치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제임스 목사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시도하는 듯한 이수라장이 연출된다. 아버지의 조롱 섞인 목소리 속에서 제임스 목사가 오만한 위선자로 추락하고 제임스 목사가 허둥대듯 반격에 나서는 상황은 전형적인 카니발적 특성을 나타낸다.²⁵⁾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특유의 서술 기법을 통해서 더욱 강화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연작들은

특이하게도 문단 구별이 전혀 없다. 문단이 나뉘져 있지 않기에 네 명의 노인과 노인을 둘러싼 다른 인물들의 발화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고, 회상 장면에서도 어디서부터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과거인지, 어디까지가 현재의 노인의 의식이고 어디까지가 젊은 시절의 의식인지 그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그러한 방식은 특히 윤선생이 죽어가는 순간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질적인 인물들의 목소리를 혼용시키면서 카니발적 다음성성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윤선생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 특히 사범학교 시절 자신을 좋아하여 따라오던 남학생이 두려워 그를 열차에서 밀쳐 죽음에 이르게 한 죄를 고백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자신의 고통에 다시 합당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²⁵⁾ 그러나 죽음을 눈앞에 둔 그녀에게 깊은 신앙에서 오는 구원의 확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의 불안감은 마지막 신음에서 표현된다. 그녀는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에 대해 “저,저,는,,주,님,을,,만,나,기,가,,두,려,워,요....”(257면)라고 토로하고 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씨에게도 죽음은 역사의 고난을 견디기 위해 의지해온 유일한 버팀목이 무너지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난세 속에서도 은신하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능력, 즉 책을 보는 눈과 기억력 혹은 지성이 파괴되는 것이다. 그는 망막박리 증상에 더하여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시신경을 크게 다치는 바람에 곧 시력을 잃을 것임을 진단받고 기억력의 퇴조는 알츠하이머의 증상임이 드러난다. “머릿속에 인문사회과학 백과사전

25) 악령의 교시를 받은 아버지의 혼령이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심장하다. 이는 ‘악마극’에서 “공식적인 기독교적 세계관에 반하여 행동하고 말하며” “금기를 벗어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악마들이 등장하고, 그로 인해 “고삐 풀린 카니발적 자유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미하일 바흐친, 앞의 책, 412면.

26) “저는 사범학교에 다닐 때 한 남성을 사지로 몰아넣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 아래 영원히 숨겨지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야말로 그 살인죄를 평생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죽음의 환란을 주시는군요.”(254-255면)

한 질은 죽히 들어있을”(323면) 김씨가 더 이상 책을 읽을 수 없고 글을 쓸 수 없으며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의 삶 전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전복되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시력을 잃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 책을 읽지 못하게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다른 건 몰라도 눈감을 때까지 눈만은 성해야지. 내가 글을 못 읽게 되면 그땐 인생 끝장이야. 형님처럼 치매부터 금방 달려들걸. 만약 당당 봉사가 된다면 세상을 못 보는 건 운명으로 알고 체념하겠는데.....(240면)

그러나 김씨가 젊은 날부터 무위의 덕을 주장하는 노장사상에 심취하고 존재의 무의미성에 대한 사르트르의 실존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면, 그리고 모든 것에 초연한 태도로 “나야 아무 이론 것 없이 미물 같은 소시민으로 평생을 살았”(301면)다고 자평하고 “인간으로 태어나 목숨 유지함 자체가 들끓보다 나은 게 없다는 허무주의에 빠졌다”(291면)고 회고한다면, 위의 발언에서 드러나는 책 읽기에 대한 과도한 강박에는 어떤 자가당착적인 면이 있다. 물론 그것은 물질적 현실 대신 책의 세계에 파묻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온 그의 일관된 태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노쇠한 김씨가 신간 도서들의 내용을 소화하지 못하고 주로 과거에 읽은 고전들을 다시 들추어보는 데 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책을 향한 그의 끝없는 욕망도 세속의 욕망처럼 공허한 집착이 아닌 가 하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의 글쓰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가 가능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잡기장에 기록하는데, 파기한 것을 제외하고도 66권이 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다. 그것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는 맹목에 가까운 강력한 욕망의 소산이고, 그 욕망은 다만 잡기장의 무의미함에 대한 김씨 자신의 겸사로 다소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에 게 책읽기와 쓰기는 배움과 성찰의 활동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현실 정치

에 용감하게 뛰어들이지 못한 자신의 결핍을 대리 만족하는 수단일 수도 있다. 즉 끝없이 읽고 쓰고자 하는 김씨의 집착은 그가 “당신은 내가 이쪽 저쪽 정치관 눈치 보며 따라다닐 놈이 아닌 줄 알잖아”(333면)라고 말하며 현실로 뛰어들이지 못한 자신의 나약함을 어떤 정결함으로 포장할 때 언뜻 드러나는 내밀한 욕망의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력과 기억력의 상실이 지적 욕망의 허무함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는 것과 아울러 김씨는 죽음에 직면하여 역사가 안겨준 고통 앞에서 지성의 세계에 침잠함으로써 이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의 기획이 실패였음을 자인한다. 딸을 잃고 고아원을 무작정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닐 정도로 깊고 깊었던 슬픔, 분단으로 인해 계속되는 이산의 고통을 그는 무엇으로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김형준은 잡기장 66권에 이런 기록이 있었음을 기억한다. - 걱정, 두려움, 저항으로, 보통은 거부로. 우리는 이별이 주는 상실감 앞에서 인간들이 보이는 반응을 일반적으로 슬픔이라 부른다. 인간은 이 슬픔을 통해서만 상실감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스스로 끝내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끝남을 당한다. 발레리. 김형준이 그 구절에서 따와, 작은아버지, 슬픔을 통해서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말한 시인을 기억하세요? 하고 묻는다. 기억이 안 나. 사실 나는 슬픔을 통해서 새로 시작한 게 없어.(중략) 참는 도리밖에. 슬픔은 기억이 존재하는 한 잠재울 수 없으니, 죽자고 참는 수밖에.(338면)

김씨는 임종의 순간에 다가가면서 “사, 라, 암, 은.. 주, 죽, 음, 을.. 하, 양, 해.. 누, 구, 나..스, 슬, 프, 음, 을.. 차, 참, 으, 며,, 가, 가, 고.. 이, 있, 어, 나, 여, 역, 시,.....”(293)라고 주절거린다. 그리고 그 문장이 연작 마지막 편의 종지부를 이룬다.

이처럼 네 노인이 평생을 두고 추구하던 소망과 가치는 죽음 앞에서

하나하나 그 빈틈과 무의미를 드러내면서 전복된다. 역사가 남긴 삶의 고통과 상처, 훼손, 모든 슬픔을 극복하고 살아갈 의미를 부여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고유한 정체성이 죽음의 카니발적 힘을 통해서 해체되고, 그들 모두 역사의 감옥을 벗어나지 못한 채 슬픈 시간의 기억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시간의 기억이 불러일으키는 슬픔을 참아내면서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드러난다. 김씨는 네 노인의 삶을 종합하며 이렇게 말한다. “늙은이들은 그렇게 슬픔에 간혀 겨우 숨을 쉬지. 그러나 그 슬픔에서 해방되어 새롭게 시작할 무엇도, 심지어 슬픔을 깨달을 지각력도 마비되었어.”(339면) 이처럼 비극의 역사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이들 노인에게 결론으로 남는 것은 “슬픔은 기억이 존재하는 한 잠재할 수 없”다는 것, “몸이, 내 눈이 이렇게 가듯, 스스로 슬픔을 죽이는 방법을 찾”(338면) 아내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 오직 죽음만이 인간을 모든 기억에서, 슬픈 역사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것이다.

역사의 상흔인 ‘슬픈 시간의 기억’은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극복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비극적 인식 속에서 역사와 인간은 화해할 수 없이 대립하고, 모든 역사적 규정성 너머에 있는 인간적 삶은 도달할 수 없는 먼 유토피아적 영역으로 남게 된다. 여기에서 역사와 인간 사이의 올바른 선택법에 대한 질문이 떠오른다. 그것은 기억하는 존재,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관념과 모든 것과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관념 사이의 모순과도 관련된 질문이며, 그 어려운 철학적 질문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밖에는 역사의 감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 어느 전쟁 세대의 절망을 통해 가장 첨예한 형태로 제기되는 것이다.

5. 결론

『슬픈 시간의 기억』에서 김원일은 죽음을 목전에 둔 네 명의 노인의 기억과 의식을 매개로 하여 한국 현대사를 만든 결정적인 십여 년의 시대를 이야기한다. 그들은 이중의 의미에서 역사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다. 역사가 결정지어준 운명을 조금도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평생 동안 가혹한 역사적 수난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도, 그것과 화해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식민 지배와 이념 투쟁, 분단과 비인간적 전쟁의 역사는 그 속에서 희생되어 쓰러진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역사를 버텨내고 살아남아 자기 나름의 생을 만들어보려고 애쓴 자들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 통렬하게 비판된다. 그것이 바로 김원일이 이 소설에서 들려준 이야기다. 그리고 그 실패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영웅적이기도 하다. 그들이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고 지켜줄 보호자도 없는 청춘의 몸으로 얼마나 거센 역사의 파고에 내맡겨져 있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고도 평생을 싸워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말이다. 그래서 귀부인을 양공주로 추락시키는 카니발적 전도는 개인에 대한 조롱이나 냉소와는 거리가 멀고 역사의 가혹한 상흔에 대한 냉정한 직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싸우고 기만하고 고통에 몸서리치고 어떤 해결에도 도달하지 못한 채 마지막까지 공포와 슬픔에 떠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 김원일은 역사 속 인간의 리얼한 초상을 창조하였고, 이는 1920년경에 태어나 2000년경에 말년에 이른 한 세대, 아름다운 청춘기를 가장 잔혹한 압제와 전쟁 속에서 보내고 그것을 밑천으로 한 생을 살아내야 했던 세대에 대한 경의와 애도의 표현일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김원일, 『슬픈 시간의 기억』, 장, 2011.

2. 단행본

김윤식, 김미현 엮음, 『소설, 노년을 말하다』. 황금가지, 2004.

미하일 바흐친, 이덕형, 최건영 역,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아카넷, 2001.

3. 논문

김명훈, 「『어둠의 혼』에 이르는 길- 김원일 초기소설에 나타난 화자/인물의 형상을 중심으로-」, 『배달말』 71권, 배달말학회, 2022. 599-629면.

김은정, 「질병의 의미를 통한 노년소설 연구- 김원일의 『슬픈 시간의 기억』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77권, 국제어문학회, 2018. 327~354면.

류종렬,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사」, 『한국문학논총』 50집, 한국문학회, 2008, 501~536면.

마혜정, 「노년의 욕망: 발설과 은폐-『김원일의 슬픈 시간의 기억』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9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111-133면.

박대현, 「한국노년문학과 말년성(lateness)의 지형학-노년문학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논의 확장을 위한 시론(試論)」, 『한국문학논총』 79호, 한국문학회, 2018, 387-423면.

박희경, 「카니발적 웃음- 토마스 부르시히의 『우리같은 영웅들』 분석」, 『독일문학』 108권, 한국독어독문학회, 2008, 168-190면.

박찬효, 「김원일의 『슬픈 시간의 기억』에 나타난 죄의식의 표출과 과거 기억의 재현 양상」, 『한국언어문학』 86권, 한국언어문학회, 2013, 299-324면.

우은진, 「김원일의 『슬픈 시간의 기억』에 나타난 노년 서사의 서술되는 기억과 망각되는 시간」, 『어문논총』 78권, 한국문학언어학회, 2018, 517-545면.

우은진, 「김원일의 〈나는 누구인가〉에 드러난 여성의 중층적 시선과 목소리」, 『한국문학논집』 62권, 한국문학회, 2012, 290-327면.

이숙, 「노년소설의 서사적 양상과 치유적 효능- 김원일의 『슬픈 시간의 기억』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92호, 한민족어문학회, 2021, 161-194면.

이성희, 「『슬픈 시간의 기억』을 통해 본 김원일의 분단에 대한 인식」, 『반교어문연구』

23호, 반고어문학회, 2007, 249-267면.

조희경, 「가족, 그 슬픈 초상-김원일의 『슬픈 시간의 기억』」, 『우리문학연구』 16집, 우리문학회, 2003, 85-111면.

<Abstract>

Prison of History: The Life and Death of a War Generation

— Centered on Kim Won-il's *Memories of Sad Times*

Oh, Ja-eun

“*Memories of Sad Times*” tells the decisive decade or so of making modern Korean history through the memories and consciousness of the four elderly people who are about to die. As an “old man,” the author shows historical human typology through four elderly people who experience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past and “human beings.” They are a woman who has experienced all the history of hardship with her body, chojungdaek who is faithful to her desires, teacher Yoon who chose the life of a believer, and Kim, a weak intellectual. The history of the body, the history of the individual's desire, and the history of the individual's life of the mental individual are revealed through the four elderly people. However, the wishes and values they have pursued throughout their lives are overturned by revealing their meaninglessness in the face of death. Death appears as a carnival force that evangelizes and destroys the value of life. In this way, the unique identity that history believed would allow us to overcome the pain of life left behind is dismantled. History and humans are at odds with each other in the tragic perception that the wounds left by history can only be overcome through death. The despair of these war generations raises the question of correct calculation between history and humans most sharply.

Key words: Kim Won Il, Memories of Sad Times, Pacific War, Old Age Novel, Carnival

투 고 일: 2024년 8월 20일

심 사 일: 2024년 9월 11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1일

수정마감일: 2024년 9월 25일